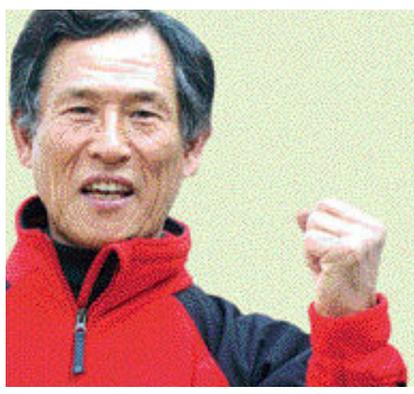
황금돼지해 고객 사은
특별 우대 금리 시행
동양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제17710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7년 3월 23일 (음력 2월 5일) 금요일

결혼 거부하는 혼기 꽉찬 자녀라면!

칠순 광주산악인 에베레스트 도전



"목표요? 당연히 정상이죠
나이는 숫자에 불과합니다
'도전하는 젊음' 아름답죠"

세계 최고령 기록 깨겠다

실버원정대 이남진씨 5월 등정

"목표요? 당연히 정상이죠" 세계 최초로 60세 이상으로만 구성된 '2007 한국 에베레스트 실버원정대' 이남진(71·광주대웅산악회) 대원은 "유일한 호남 출신으로서 자존심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등정하겠다"고 기염을 토했다. 이를 통해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젊은이들에게 도전과 개척정신, 목표 의식을 심어주겠다는 강한 의지도 피력했다.

(사)한국산악회(회장 최홍건)는 고령화 시대에 걸맞는 새로운 산악운동의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실버원정대를 꾸리기로 하고, 지난해 9월 60세 이상 산악인들을 대상으로 대원을 모집했다. 전국에서 지원한 53명을 대상으로 신체검사와 체력테스트, 14회의 강도 높은 산행·고소적응 훈련을 거쳐 올해 초 8명을 최종 선발했다.

대원들 가운데 이씨는 호남에서 유일하게 선발됐다. 이씨 등은 6개월동안 국내 유명산에서 무게 20~35kg의 배낭을 메고 지구력과 기술훈련을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해발 6,189m의 네팔 임자체(아일랜드 피크)에서 고소 적응까지 마쳤다.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겼다. 지난달 3일 한라산 장구목에서는 러셀(눈을 밟아 다지면서 앞으로 나아가는 일) 도중 눈사태를 만나 전 대원이 한꺼번에 눈 속에 갇히기도 했다.

"신설을 거슬러 올라가다 눈사태가 쏟아지는 바람에 15분 동안 눈더미에 갇혀 있어야 했고 고글이 깨져 상처를 입기도 했죠." 한북정맥 종주훈련 도중에는 왕벌 20여마리에 쏘이는 바람에 곤욕을 치렀다.

두 번의 사고에도 불구하고 이씨는 위축되기는 커녕 더욱 자신감이 생긴 표정이었다. "하늘이 더욱 의미 있게 살라며 두 번째 삶의 기회를 준 것 아니겠어요?"

산과의 인연은 1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성균관대 영문과를 졸업하고 광주, 전남·북 지역에서 30년 가까이 교사로 재직하다 1996년 진도 지산중 교장을 끝으로 퇴임한 그는 경찰·교사 출신들과 함께 대웅산악회를 만들었고 2대 회장까지 지냈다. 호남정맥과 백두대간을 종주하고 2002년과 2005년에는 네팔 쿰부 히말라야 칼라파타르와 안나푸르나 트레킹을 다녀오기도 했다.

키 170cm, 몸무게 65kg의 다부진 체격인 그는 젊은 시절 정구와 배구, 수영 등 운동이라면 마다하지 않는 '만능 스포츠맨'이었다. 노인복지시설을 찾아다니며 아코디언 연주로 봉사활동을 하는 음악애호가이기도 하다.

가톨릭여성산악회장을 지낸 부인 원부자(68)씨는 세 자녀에겐 비밀로 하자며 '죽음의 지대'로 가는 각서에 도장을 찍어주었다.

지금까지 에베레스트 등정자 중 최고령은 일본인 아라야마 다키오(2006년·70세)씨, 한국인 가운데는 천병태(2004년·47세)씨가 최고령이다. 이씨가 정상에 오른다면 두 기록을 모두 깨게 되는 것이다.(이씨의 나이는 호적상 69세지만 실제로는 1936년생이다)

원정대는 24일 출국, 5월 중순 정상 도전에 나선다. 원정대 홈페이지 www.silverexp.com.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사진=나명주기자 mjna@

우림학원 창학 60년 역사와 전통
남부대학교
http://www.nambu.ac.kr
전남과학대학
http://www.chunnam-tc.ac.kr

지방의원 '밥그릇 챙기기' 또 도졌다

유급보좌관제 재추진…급여도 2배 올리기로

지방의원들의 '제밥그릇 챙기기' 악습이 되살아났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의회를 포함한 전국 광역·기초의원들이 수개월 전 여론의 호된 비판 속에 도입이 무산됐던 광역의원 유급보좌관제를 재추진하고, 유급제 시행 1년이 갓 지난 시점에서 급여를 두배 이상 올리기로 해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광주·전남지역 시·군·구의회 대표로 구성된 전국 시·군·자치구 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1일 대전 서구청 회의실에서 시·도 대표회의를 열고 "시·군·구 의원들의 원활한 의정업무 추진을 위해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이 기초 자치단체 부단체장 보수 수준으로 상향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기초의원 보수 현실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그러나 이들이 인상을 주장하는 의원 급여는 지난해 1월 무보수 명예직에서 연봉제로 전환되면서 적용된 것으로 겨우 1년이 지난 데다,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감안해 볼 때 무리한 대폭 인상이란 비판의 소리가 높다.

특히 이들의 주장대로 부단체장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면 2천700만~2천800만원인 현재 수준보다 최고 2.5배 이상 인상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광주·전남 지역 시·군·구 대부분이 국고 지원 없이는 공무원들 월급도 줄 수 없는 열악한 재정 상황임을 감안할 때 의정활동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그릇 챙기기에만 열중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몫 챙기기는 시·도 광역의회도 마찬가지다.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 등 전국 16개 시·도의회 의장협의회는 지난 20일 행정자치부를 방문, 광역의원 유급보좌관과 지방의원 행정사무감사 지원 인턴제 도입을 요구했다. 이들은 또 지방의회 사무기구 인사권 독립과 지방의회 의정운영 지원경비 현실화도 요청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전남 식품소재 구매상담 나주 배, 장흥 호박, 보성 녹차 등 전남 농산물을 이용한 '식품 소재 구매상담회'가 22일 나주시 생물산업지원센터에서 열렸다. 식품 관련업계 관계자들이 전남 농산물로 만든 식품 소재들을 둘러보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

社告

제14회 무료 시민 건강강좌

28일 오후2시 전남대병원5동 1층 강당
문은선 교수 '손 저림증 원인 및 치료'

광주일보사와 전남대 병원은 오는 28일 '제 14회 테마가 있는 시민 건강강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강좌는 컴퓨터를 장시간 사용하는 사무직과 가사노동을 많이 하는 50~60대 여성에서 발생하는 '손 저림증'을 주제로 열립니다.

강사는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문은선 교수로 손저림증의 정의, 발생원인, 증상, 치료방법 등에 대한 설명과 상담을 해 줄 것입니다.

강좌의 내용은 오는 4월3일(화요일)자 광주일보에 게재됩니다.

독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주 제 : 손 저림증
■강 사 : 문은선 전남대병원 정형외과 교수

- 수부외과 전문의
- 대한 수부외과학회 학술이사
- 佛 낭시대학 수부병원 연수
- 스위스 AO(골절치료연구회) 기초 및 Advanced 과정 수료
- 대한견주관절학회장 역임

■일 시 : 3월 28일(수) 오후 2시
■장 소 : 광주시 동구 전남대병원 5동 1층 강당
■문 의 : 전남대병원 홍보실(062)222-5092
교육연구실(062)220-6082

光州日報社·전남대병원

논술 교육 프로그램 퍼팩트 論述 ▶14면

희망병원(광주양산지구) 3월 26일 진료개시!
사랑과 행복이 가득한 곳!
광주희망병원
진료과목
주요 특수재활치료
재활병동
광주희망병원
광주일신병원
대표전화 062-628-6000
팩스 062-606-0119
재활센터 062-606-0153